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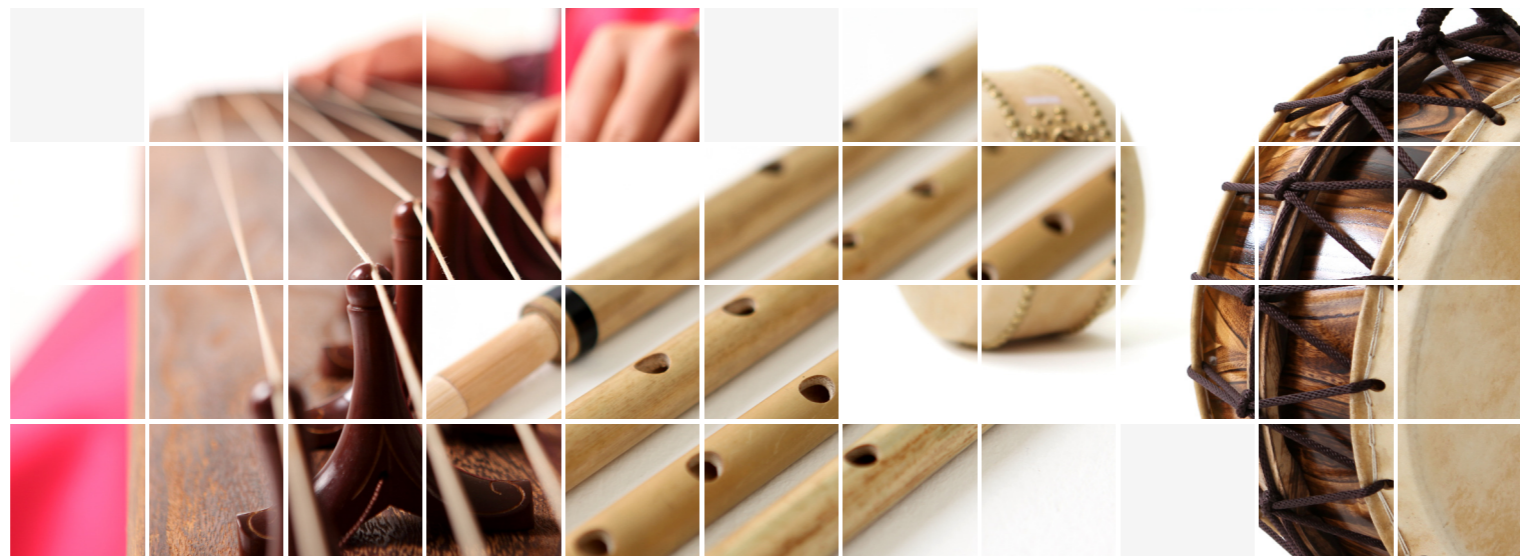


북소리 '두리둥 둥둥', 하늘땅에 퍼져간다

BUK

'Duridung-Dungdung',
the sound of a buk (Korean drum)
spreads to the sky and to the ground.

한국의 전통악기



한국의 전통악기는 (1) 음악에 따른 분류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구분한다. (1)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은 중국에서 1114년(고려 예종 9년)에 수입된 대성아악에 쓰이는 아악기, 중국과 서역에서 제작되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악기를 가리키는 당악기,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고유의 향악기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은 자연에서 얻은 여덟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로 분류하는 방법**은 악기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한국의 전통악기



1493년(조선 성종 24년)에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 권6의 <아부 악기 도설>과 <당부 악기 도설>, 권7의 <향부 악기 도설>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크게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나뉘고,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포함돼 있다.

향악기(鄕樂器) 향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가야금(伽倻琴), 거문고(玄琴), 향비파(鄕琵琶), 향피리(鄕簫), 대금(大笏), 중금(中笏), 소금(小笏),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아악기(雅樂器) 아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편종(編鐘), 편경(編磬), 특종(特鐘), 특경(特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路鼓),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도(鼗), 절고(節鼓), 진고(晉鼓), 축(祝), 어(敵), 관(管), 약(籥), 화(和), 생(笙), 우(竽), 소(簫), 부(缶), 적(箎), 훈(埴), 지(篋), 슬(瑟), 금(琴), 순(鎗), 탁(鐸), 요(鐔), 탁(鐃), 응(應), 아(雅), 상(相), 독(牘)

당악기(唐樂器) 당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박(拍), 방향(方響), 월금(月琴), 교방고(敎坊鼓), 장구(杖鼓),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피리(唐簫), 당적(唐笛), 통소(洞簫), 태평소(太平簫)

한국의 전통악기



중국 고대 음악 관련 문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악고(樂考)」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악기의 재료에 따라 크게 팔음(八音)으로 분류한 뒤, 아악에 해당하는 <아부(雅部)>와 속악에 해당하는 <속부(俗部)>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있다.

금부(金部)악기 쇠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특종, 편종, 순, 요, 탁(鐸), 탁(鐃)

속부: 향발, 방향, 동발(銅鈸)

석부(石部)악기 돌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경(磬)

사부(絲部)악기 줄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금, 슬

속부: 거문고, 가야금, 해금, 당비파, 향비파, 월금, 대쟁, 아쟁, 알쟁(篋箏)

죽부(竹部)악기 대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한국의 전통악기



아부: 소(簫), 약(簫), 관(管), 적(篋), 지(篋)

속부: 대금, 중금, 소금, 통소, 당적, 당피리, 태평소

포부(匏部)악기 바가지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생(笙), 우(竽), 화(和)

토부(土部)악기 흙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훈, 상, 부, 토고(土鼓)

혁부(革部)악기 가죽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진고, 노고, 뇌도, 영도, 노도

속부: 대고, 소고, 절고, 교방고, 장구

목부(木部)악기 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부, 축, 어, 응, 아, 독

한국의 전통악기



1914년 호른보스텔(E.M. von Hornbostel, 1877~1935)과 쿠르트 작스(Curt Sachs)의 저서『악기분류법시도』에도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크게 나눈 다음, 관악기를 북 종류와 그 밖의 악기로 나누는 방법이다.

현악기(絃樂器) 줄을 뜯거나 튕기고,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 등

관악기(管樂器) 호흡을 이용해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

대금, 피리, 단소, 태평소, 통소, 훈 등

타악기(打樂器) 채와 손을 이용해 두드리고 쳐서 소리 내는 악기

편종, 편경, 장구, 북, 좌고, 팽과리 등



◦
一
알
아
보
기

◦
二
살
펴
보
기

◦
三
체
험
하
기



1

알아보기

- 북의 기원과 기능
- 기록과 유물 속의 북
- 북의 형태와 재료
- 북 제작 과정



북의 기원과 기능

예부터 우리 민족은 북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알고 신성하게 여겼다.



풍물북

북은 기원전까지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악기다. 북은 각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반영하며, 인류 역사상 타악기로는 가장 먼저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북소리는 심장박동 소리를 연상하게 하며 넘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고루 사용되었으며, 춤과 조화를 이룬 북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북은 사람이 만든 최초의 악기라고 봐도 무방하며, 인류의 문화가 시작된 고대부터 일상에서 두루 연주되는 등 생활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인류가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는 부족 간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한민족은 북을 하늘과 통하는 악기로 여기고 북을 연주하여 신을 부르고, 천신을 모신 원구와 풍운뇌우(風雲雷雨), 자연만물을 향한 제사 때 ‘뇌고(雷鼓)’를 편성했다. 예부터 우리민족은 북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여기고, 샤머니즘적인 악기로 북을 신성시했던 것이다. 북은



북의 기원과 기능

예부터 우리 민족은 북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알고 신성하게 여겼다.



풍물북

단순한 구조지만 사람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소리를 내며, 가슴에 맺힌 슬픔은 물론 흥을 불러일으키는 신명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은 주술적·종교적인 기능, 신호와 소통의 기능, 놀이와 오락의 기능, 단합과 화합의 기능, 반주악기의 기능, 음악 연주의 기능을 담당한다.



기록과 유물 속의 북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

6~7세기 추정(1993년 발굴) | 국보 제287호 |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 높이 61.8cm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절터 목곽 수로 안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다. 피리를 비롯해서 비파, 현금, 북을 연주하는 다섯 명의 악사가 표현되어 있다. 이 중 무릎 위에 북을 올려놓은 악사는 오른손에 채를 쥐고 등근 북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록과 유물 속의 북



농악북(農樂鼓, 풍물북)

1960년대 |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 |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소장 | 지름 41.9cm, 두께 23.8cm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 삼천포 농악에서 사용된 북이다. 농악북은 행진하거나 춤을 출 때 연주되었으므로 왼쪽 어깨에 악기를 멜 수 있도록 형곶 끈을 연결하고, 오른손에 나무 북채를 쥐고 두드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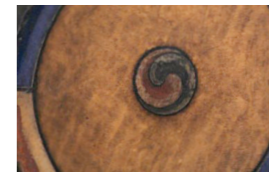
기록과 유물 속의 북



좌고(座鼓)

지름 54cm, 두께 25cm

좌고는 본래 궁중음악에서 연주되었으나 민간 연회에서도 두루 쓰여 왔다. 대표적인 예로 삼현육각(피리2, 북1, 해금1, 대금1, 장구1) 편성을 들 수 있는데, 장구 장단과 함께 음량을 강화하고 활기를 북돋는 역할을 한다.





기록과 유물 속의 북



평생도(平生圖)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가로 35.2cm, 세로 53.9cm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년~ 1806년 전후)의 8폭 병풍「평생도」에 등장하는 삼일유가(三日遊街)의 한 장면이다. 과거 급제자를 앞서가는 삼현육각 편성의 악대 가운데 두 사람이 어깨에 북을 걸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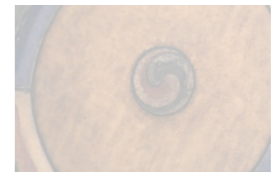
기록과 유물 속의 북



무동(舞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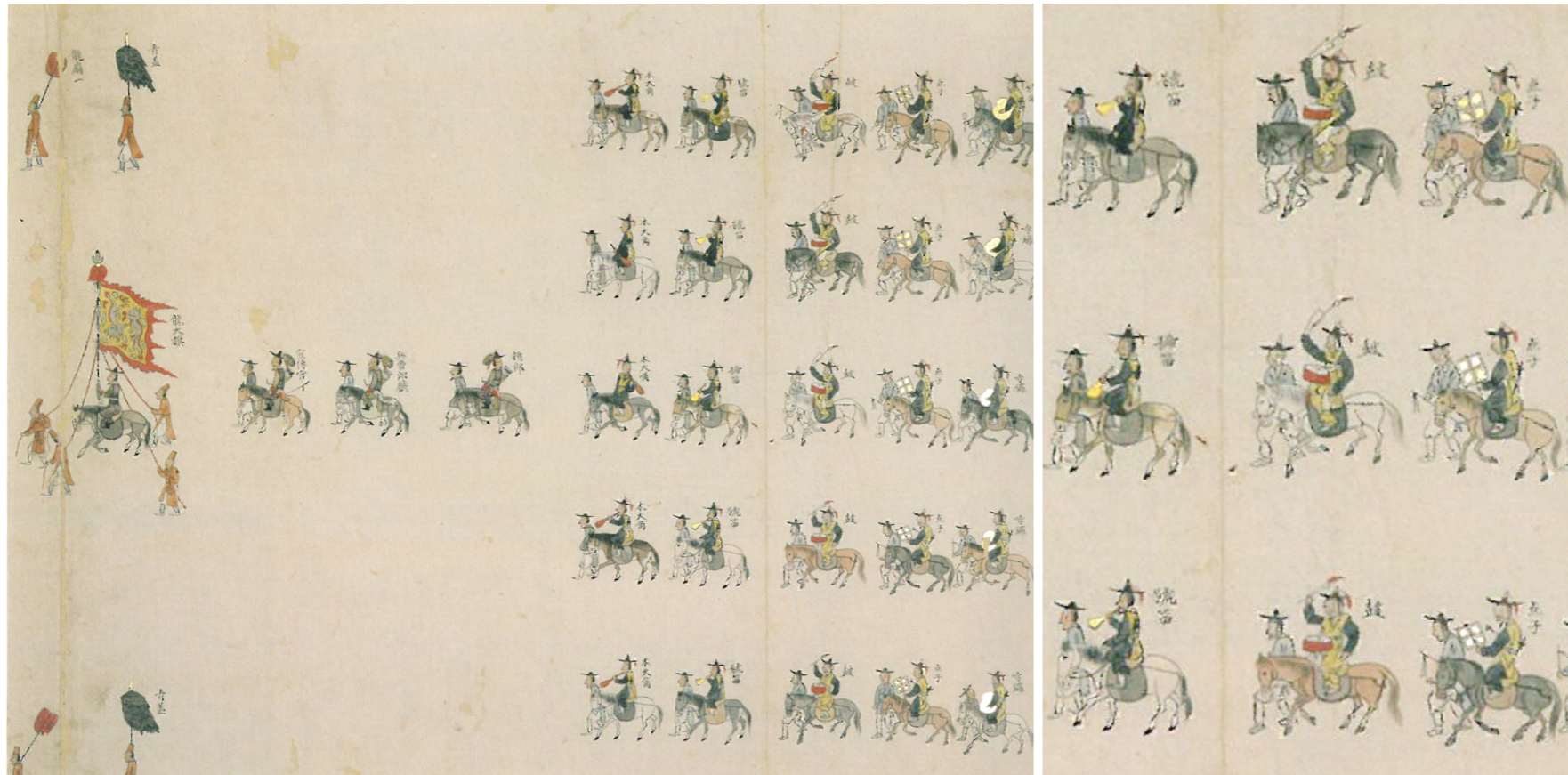
조선 18세기 | 보물 제527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가로 23.5cm, 세로 28cm

무동의 춤사위에서 신명이 전해지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다.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과 악사들이 연주하고 있는 각각의 악기 모습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화면 왼쪽 상단의 악사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좌고'다.





기록과 유물 속의 북



화성친행도(華城親行圖)

조선 정조 19년(1795)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세로 46.7cm, 가로 460cm

1795년 정조(正祖)는 여드레 동안 축제를 열고, 10권 8책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로 행사 내용과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다. 위 그림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는 장면을 긴 화폭에 옮겨놓은 '화성친행반차도' 중 일부로, 북을 연주하는 악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기록과 유물 속의 북



오음육률 (五音六律)

조선 19세기 | 송실대학교박물관 소장

세로 26.5cm, 가로 18cm

19세기 후반 백성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김준근의 풍속화로 피리, 대금, 해금이어 우러진 삼현육각 편성을 소개하고 있다.





북의 형태와 재료

8음(八音, 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 중 혁부(革部, 가죽으로 만든 악기)로 구분된다.
가죽은 4~5년생의 황소가죽이 좋고, 북통은 연하고 가벼운 피나무를 많이 쓴다.



소리북 +



가죽 +

북통 +



풍물북 +



북의 형태와 재료



소리북

소리북은 오동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통에 소가죽을 덮어씌운 후 못을 박아서 만든다. 가죽을 잘 말리고 못을 잘 박아야 북통이 고루 벌어지고 북면도 무거워져 낮은음이 잘 울린다. 북통에는 쇠장식이나 고리를 달기도 하고 '늦쇠'나 '백동장식'을 다는 경우도 있다. 간혹 북면에 태극과 용의 모습을 그리는 '단청북'과 장식을 하지 않는 '백북'이 있는데, 단청북은 중부 지역에서, 백북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사용한다.





북의 형태와 재료



가죽

북 양쪽에 씌우는 가죽은 4~5년생의 황소 가죽이 좋다. 소가죽을 북통에 씌우는 과정은 꽤 복잡한데 이때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도구가 많이 쓰인다. 큰북을 제작할 때에도 4~5년생 한우의 황소 가죽을 제일로 친다. 소가죽은 부위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엉덩이 가죽은 음질이 딱딱한 좌고(座鼓)에 적합하며, 목 부위의 가죽은 저음을 내기에 좋아 소리북에 쓰인다. 겨드랑이 부위와 배 부위의 가죽은 연하기 때문에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다. 말가죽은 오래전 정악(正樂)의 여러 북에 썼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북의 형태와 재료



북통

북통은 연하고 가벼워 대못 박기가 수월한 피나무를 주로 쓴다. 15~20년생 된 생 피나무를 서늘한 그늘에서 2~3년간 말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통의 나무를 켜거나 다듬을 때에는 작은 나무에서 쓰는 도구를 사용한다.





북의 형태와 재료



풍물북

풍물북은 농악(풍물굿)에 쓰이는 북으로
웅골찬 소리가 나야 한다. 연주자가 어깨
에 메고 이동하면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북
에 형겅 끈을 연결하기도 한다. 오동나무나
한반도 각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루나무
를 재료로 하며, 나무의 속을 파낸 다음 양
편에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대고 양쪽 가죽
을 줄로 엮어 조여서 만든다. 최근에는 여
러 개의 나무판을 연결해서 북통을 제작하
고 있다.





북 제작 과정



제작순서 + 제작도구 +



북 제작 과정



① 북통) 나무 자르고 쪽판 만들기

예전에는 굵은 소나무를 통째로 사용해 안쪽을 파내는 방식으로 북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굵은 소나무의 수가 줄어 일정한 두께의 나무판을 여러 겹 연결해 붙여서 만들고 있다.



② 북통) 각도 잡고 울림통 만들기

울림통은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로 만든다. 여러 개의 쪽 나무를 정확한 각도로 재단하고 빈틈없이 치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쪽씩 다듬은 쪽 나무를 북통 크기의 원형 철판에 맞춰 동그랴게 세워나간다.





북 제작 과정



③ 북통) 쪽판 붙이고 다듬은 뒤 그을리기

동그란 북통 모양이 잡히면 접착제를 이용해 연결한다. 이때 도구를 이용해서 모나거나 거친 부분을 다듬고 울림통의 형태를 정교하게 잡아나간다. 변형을 막고 나무통의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에 그을린다.



④ 가죽) 털 녹이기

가죽의 기름을 제거하고 털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넓은 가죽을 접어서 나무 목욕통 모양의 '회통'에 넣고 적당한 무게의 돌로 눌러준다. 사흘 정도 지나면 가죽이 불어나면서 지방이나 털 등 각종 이물질이 제거된다.



북 제작 과정



⑤ 가죽) 대패질하며 털 제거하기

깨끗한 가죽을 얻으려면 넓은 소가죽을 건어 장대 위에 걸쳐 놓고 '장두칼'로 문질러 가죽 표면의 털을 제거하고 하얀 바탕이 되도록 가공한다.



⑥ 가죽) 기름 떼는 과정

가죽에 밀착되어 있는 여분의 기름을 남김없이 떼어낸다. 불순물이 남아 있으면 소리가 달라지거나 악기가 변형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악기로 쓰일 수 있는 가죽의 질이 결정된다.



복 제작 과정



⑦ 가죽 '쟁' 치기

가죽이 다 마르면 가죽을 씌우거나 늘릴 때 쓰는 도구로 가죽을 펴면서 다듬어나간다. 생 쇠가죽을 말리기 위해서는 사방 2m 정도의 넓은 '쟁판'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녹슬지 않는 25개 내지 30개의 '걸고리'가 쓰인다.



⑧ 원장을 내려놓고 부위별로 재단 뜨기

울림통 크기에 맞게 재단된 가죽에 원장을 내려놓고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부위별로 재단을 뜬다. 가죽이 늘어나면 크기에 맞게 조절해가기를 거듭 반복하는데 대략 사흘 정도 걸린다.



북 제작 과정



⑨ 북 메우기

북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북통에 가죽을 메우는 과정을 '북 메우기'라 한다. 칼자국이나 상처가 없는 양질의 가죽을 우선으로 선별하며 질기고 탄력이 좋은 황소 수소 가죽을 최상품으로 친다.



⑩ 최종 마무리

주변에 지지분하게 남아 있는 가죽과 거친 부분을 깨끗이 다듬어 정리한다. 풍물북은 줄을 연결하고 소리북은 여분의 가죽 잘라낸 다음 가죽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람 머리 모양처럼 생긴 둥근 '단두침'을 박는다.



북 제작 과정



⑪ 소리 들어보기

장인의 오래된 경험과 감각으로 북의 양면을 두드려가며 소리를 확인한다. 북통에 단청과 같은 장식을 하지 않는 소리북과 농악북은 이 단계에서 제작이 비로소 모두 완료된다.



북 제작 과정



소리북과 풍물북을 제작할 때 쓰는 다양한 도구들이다. 장인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구를 변형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조이개’, ‘끌’, ‘망치’, ‘사포’와 같은 도구의 모습을 통해 제작 공정마다 세심하게 반영되는 장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나무와 쇠를 주재료로 만든 단순한 도구들조차 장구한 세월을 기약할 북의 울림을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二

살펴보기

북의 종류

소리북

풍물북

연주 방법



북의 종류



소리북 +



풍물북 +

소리북은 판소리 반주에 쓰인다. 다른 말로 ‘고장북’이라고 부른다. 풍물북은 몸통 부분에 줄을 매서 만들기 때문에 ‘줄북’이라고도 하고 줄이 늘어나 소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썰기를 조이는 것을 두고 ‘썰기북’이라고도 한다. 북은 잔가락을 연주하기보다는 박을 힘 있게 짚어가는 특징이 있으며 치는 방법에 따라 보통 왼쪽 어깨에 메고 치는 ‘외북’과 북을 허리에 북 끈으로 고정시키고 두 손에 두 개의 북채를 잡고 치는 ‘쌍북’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춤 위주의 외북을 치고, 쌍북은 가락에 세밀하게 연주할 때 사용한다. 경상도에서는 북의 크기가 크고 넓은 편이며 북놀음이나 북을 중심으로 한 가락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북은 작은 편이다. 전라남도 진도의 북춤에서는 양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춤사위가 발달했다.



북의 종류



소리북은 판소리 반주에 쓰인다. 다른 말로 ‘고장북’이라고 부른다. 풍물북은 몸통 부분에 줄을 매서 만들기 때문에 ‘줄북’이라고도 하고 줄이 늘어나 소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썰기를 조이는 것을 두고 ‘썰기북’이라고도 한다. 북은 잔가락을 연주하기보다는 박을 힘 있게 짚어가는 특징이 있으며 치는 방법에 따라 보통 왼쪽 어깨에 메고 치는 ‘외북’과 북을 허리에 북 끈으로 고정시키고 두 손에 두 개의 북채를 잡고 치는 ‘쌍북’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춤 위주의 외북을 치고, 쌍북은 가락에 세밀하게 연주할 때 사용한다. 경상도에서는 북의 크기가 크고 넓은 편이며 북놀음이나 북을 중심으로 한 가락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북은 작은 편이다. 전라남도 진도의 북춤에서는 양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춤사위가 발달했다.



북의 종류



소리북은 판소리 반주에 쓰인다. 다른 말로 ‘고장북’이라고 부른다. 풍물북은 몸통 부분에 줄을 매서 만들기 때문에 ‘줄북’이라고도 하고 줄이 늘어나 소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썰기를 조이는 것을 두고 ‘썰기북’이라고도 한다. 북은 잔가락을 연주하기보다는 박을 힘 있게 짚어가는 특징이 있으며 치는 방법에 따라 보통 왼쪽 어깨에 메고 치는 ‘외북’과 북을 허리에 북 끈으로 고정시키고 두 손에 두 개의 북채를 잡고 치는 ‘쌍북’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춤 위주의 외북을 치고, 쌍북은 가락에 세밀하게 연주할 때 사용한다. 경상도에서는 북의 크기가 크고 넓은 편이며 북놀음이나 북을 중심으로 한 가락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북은 작은 편이다. 전라남도 진도의 북춤에서는 양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춤사위가 발달했다.



소리북의 생김새



전체 구조

소리북은 풍물북이나 삼현육각에 편성되는 북보다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이다. 북면의 크기는 대략 40cm 정도고 울림통은 약 25cm 정도다. 소리북은 소가죽을 입힌 면과 못을 박은 곳을 기준으로 5개의 박을 치는 지점이 있다. 다른 타악기에 비해서 치는 위치가 다양한 이유는 판소리 반주에서 보다 다양한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다.



소리북의 생김새



반각

소점, 반각 자리 등으로 불린다. 북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북통 위쪽에서 안쪽으로 조금 휘어진 부분이다. 채궁을 치지 않고 북통을 쳐서 박자를 짚어낼 때, 북채로 내려치는 북통의 윗부분을 가리킨다.





소리북의 생김새



매화점

채편, 매화점 등으로 불린다. 북통의 가장 윗부분에서 모서리 안쪽으로 약 3cm 정도 들어간 위치를 가리킨다. 보통 진양 장단의 두 번째 각에서 이 부분을 잔가락으로 치게 되는데, 이 가락을 매화점이라 부른 데에서 그 명칭이 비롯됐다.





소리북의 생김새



온각

막음채, 대점, 온각 등으로 불린다. 진양 장단을 연주할 때 온각 자리를 치면 장단을 맺는다는 뜻이다. 온각 자리를 치고 난 후에는 대개 장단을 푸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궁편을 친다.





소리북의 생김새



채궁

채편 굴레, 채궁 굴레, 채궁 자리 등으로 불린다. 북을 놓았을 때 오른편 가죽(채편) 한 복판을 가리킨다. 장단이나 악구의 시작을 알릴 때 북채를 이용해서 크게 울려 친다.





소리북의 생김새



궁편

북편, 구레, 궁편, 뒷궁 등으로 불린다. 오른편 채편과 짝을 이루지만 맑고 매듭진 소리가 나는 채편과 달리 왼손으로 부드럽고 울림이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박근영 명인이 소개하는 소리북



명인약력 + 인터뷰 + 연주곡듣기 +



박근영 명인이 소개하는 소리북



박근영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졸업
-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 1992년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장원(대통령상 수상)
- 송원장단연구회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현재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판소리고법 예능 보유자



박근영 명인이 소개하는 소리북



전통음악에서 북의 역할은?

우리음악에 쓰이는 북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농악을 연주할 때 쓰이는 농악 북이나 무용을 할 때 쓰는 북, 춤을 출 때 연주하는 좌고, 그리고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북 등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판소리를 연주할 때 쓰는 북을 소리북 혹은 고장북이라고 합니다. 고장북은 ‘손으로 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의 종류는 이 외에도 더 많지만 언제부터 실제 악기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북이 주로 신호용으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점차 악기로 발전해서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명인이 소개하는 소리북

소리북의 종류는?

소리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나무를 깎아 속을 파서 만든 ‘통북’이 있고 큰 나무가 드물어 소나무 같은 것을 잘라 붙여서 만든 ‘쪽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북을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0년 넘은 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쪽북을 씁니다.

북의 구조를 설명해주세요.

북은 생김새를 가리키는 명칭이 각 유파별로 조금씩 다른데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소리 고법 중요무형문화재 일산 김명환 선생님의 명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산 김명환 선생님에게 저희 아버님이신 송원 박오용 선생님이 배우셨고, 그것을 장남인 제가 그대로 받아서 배워 익혔습니다. 그래서 김명환 고수의 계통에서 채궁이라는 표현은 채로 치는 궁편을 가리킵니다. 궁편은 예전에는 ‘뒷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왼쪽을 터부시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뒷궁이라 한 것이고 요즘에는 이것을 궁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의 둘레를 ‘매화점 자리’라고 합니다. 매화점 자리는 잔가락을 연주할 때 칩니다. 또 가볍게 치는 박은 반각자리를 이용하는데, 북의 제일 윗쪽에서 약간 밑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채의 상단 부분은 온각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점 또는 대점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계통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또 북의 손잡이는 북이 앞으로 굴러가지 않게 하거나 운반할 때 들고 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북에 박혀 있는 못은 ‘관두침’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북 못’이라고 해도 됩니다. 북채로 삼기에 가장 좋은 재질의 나무는 탕자나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탕자가 귀해서 다른 여러 나무로 북채를 만듭니다. 저도 ‘물푸레나무’도 써보고 ‘도장목’도 써보고 ‘박달나무’도 써 봤습니다만, 그래도 북의 성음



박근영 명인이 소개하는 소리북

소리북의 역할과 연주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소리북은 판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악기입니다. 즉 판소리를 반주하기 위한 악기가 소리북인 것입니다. 한국음악에서는 보통 장구로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고음반을 들어보면 장구로 반주한 음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북만으로 연주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함께하는 북은 기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악으로도 분류하지 않습니다. 판소리와 함께 하는 북 연주는 보통 ‘창악(唱樂)’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도 현재, 판소리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제 제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장구 장단을 치더라도 소리북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소리북의 기초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장구 반주도 궁소리나 채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나고 반주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음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리북 연주자들은 반주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주자를 빛나게 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주가 빛나게 되면 본 연주가 빛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음악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음악 공부로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음악은 호흡이 주가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연주자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다”, “호흡을 맞추다” 이런 말이 쓰입니다. 저는 소리북이 충분한 공부와 연습이 꼭 필요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명인이 소개하는 소리북



박근영 명인, 소리북 연주 <중모리 장단>





풍물북의 생김새



← 소리북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전체 구조

풍물북은 소리북과 달리 양쪽 북통에 가죽을 고정시킬 때 소가죽 줄을 엮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 따라 '줄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나무의 지름은 보통 60cm 정도고 길이는 약 30cm 크기다. 울림통의 너비보다 약간 큰 쇠로 테를 만들어 소가죽을 양쪽에 덮어씌운다. 길고 가는 소가죽이나 굵은 실로 지그재그로 감아 엮어매고 조이는데 이때 가죽과 통 사이에 나무토막으로 만든 썰기를 박아서 줄을 조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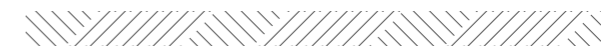


풍물북의 생김새



쌌기

북통 가운데 부분과 양면 가죽을 조이는 줄 밑에 넣어 줄의 장력을 높인다. 가죽이 늘어나 소리가 변할 때 바짝 조이는 등 북소리를 조절하는 나무토막이다.





풍물북의 생김새



조임줄

여러 겹의 실을 꼬아 만든 끈이다. 풍물북 양편 가죽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줄의 여분은 엮어 손잡이로 삼는다.





풍물북의 생김새



갓테

가늘고 긴 쇠가 휘어 30cm 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진 부분이다. 울림통 양편에 댄 가죽을 매어 놓은 '갓테'를 오가면서 줄을 얹어 매고 당겨 조인다.





풍물북의 생김새



울림통

오동나무나 미루나무와 같은 나무를 주재료로 한다. 울림이 흠어지지 않는 옹골찬 소리가 나야 하며, 어깨에 멜 수 있게끔 무게도 가벼워야 한다.





풍물북의 생김새



가죽

북통 양면에 댄다. 소가죽 또는 말가죽을 주재료로 하며, 가죽을 팽팽하게 당길수록 크고 좋은 소리가 난다.





임응수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북



서양말로 치면 베이스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임응수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북



임응수

- 1962년 충남 연기 출생
-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겸임교수
- 국악협회 한국농악분과위원장,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
- 한국예총 광명시지회장, 한국국악협회 이사
-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 역임
- 1994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대상
- 1995년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2014년도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최우수 보유자 선정(경기도지사 표창)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 예능 보유자



임응수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북

북의 종류와 풍물북 소개?

북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승무를 출 때 치는 ‘외북’, 그리고 ‘오고무’, ‘삼고무’, ‘모듬북’, 판 ↕ 소리를 할 때 쓰이는 ‘소리북’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풍물북(농악북)은 농요나 민요에 맞춰서 장단을 칠 때 사용한 북으로 농악판을 벌일 때 쓰였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물놀이’를 연주할 때 주로 쓰이는 북이 바로 제가 소개하는 풍물북(농악북)입니다.

풍물북의 특징은?

풍물북은 앉아서 연주하기도 하지만 어깨에 메고 서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의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풍물북은 오동나무나 소나무를 이용해서 북 ‘테’를 만들고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입힙니다. 북소리가 아주 웅장하지만 북을 어깨에 댔을 때 가벼운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풍물북 가락은 팽과리 가락이나 장구 가락처럼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가락이 아닙니다. 풍물북 가락은 ‘징’ 소리처럼 서양음악에서의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군데군데 정확하게 베이스 역할을 하며 가락을 넣어줄 때 북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풍물북을 연주할 때, 유의할 점은?

‘대금’이나 ‘단소’같은 악기를 배울 때에는 처음에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북은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가 쉽게 치면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연주를 쉽게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을 연주하다보면 연주 타법이 있어서 어깨, 팔, 손목, 손끝 등 신체 곳곳에 골고루 힘을 실어 북소리를 빚어내어야 합



임응수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북

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팔, 손목, 손끝, 어깨 등에 호흡을 실어서 그 호흡에 맞춰 북을 연주했을 때 가장 맑은 소리가 난다는 점을 염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풍물북의 매력은?

연주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감동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농악판 안에 들어와서 팽과리, 징, 장구, 그리고 북을 연주할 때는 온갖 시름을 다 잊고 북 소리, 팽과리 소리, 징소리에 빠져서 무아지경을 걷는다고 할까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가락 속에서 저의 인생을 모두 싣고, 거기에서 잠자고 거기에서 여행하고 또 거기에서 노는 느낌. 이런 희로애락이 북 소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응수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북



임응수 명인, 풍물북 연주 <덩더꿍가락>





북 연주 기본 자세

무릎 왼편에 소리북을 놓는다.
북통 가운데 부분과 오른쪽 쇠 징 사이에 왼쪽 무릎을 댄다.
채궁 자리의 변 밑 부분에 오른쪽 다리를 놓아,
북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한다.





북 연주 방법



소리북 ⊕ 다섯 가지 타점(궁편, 채궁, 매화점, 온각, 반각 자리)을 이용해서 판소리 반주 시 다양한 음색 변화와 효과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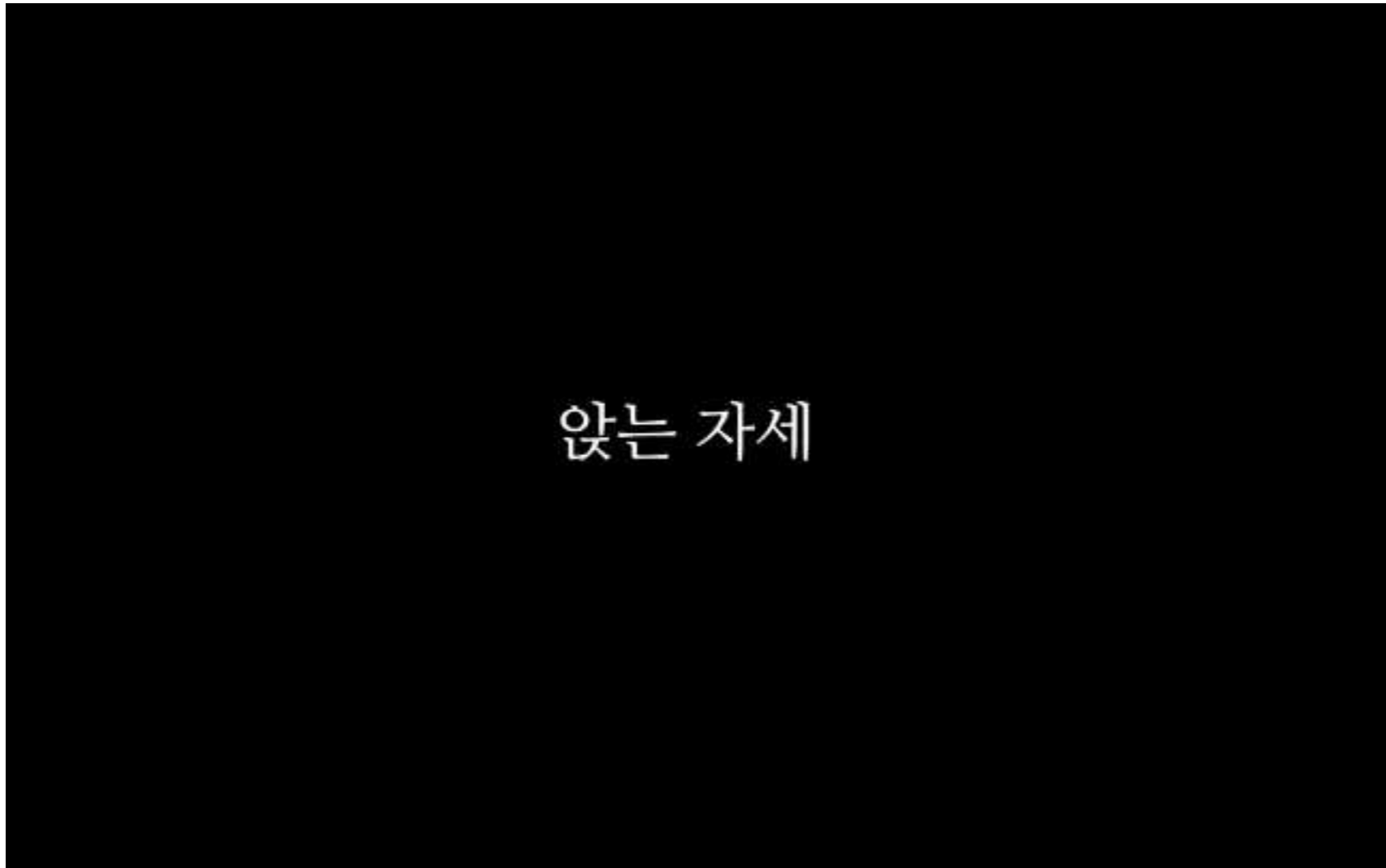


풍물북 ⊕ 농악(풍물굿), 사물놀이, 북춤 연주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소리북과 달리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서 연주할 수 있다.



북 연주 방법

고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박근영 명인은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밑에 두는 자세로 앉는다. 바르고 곧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기본이며 허리는 반드시 곧게 펴야 한다.



앉는 자세

궁손·채손 자세

궁손 연주 방법

채손 연주 방법

- '합' 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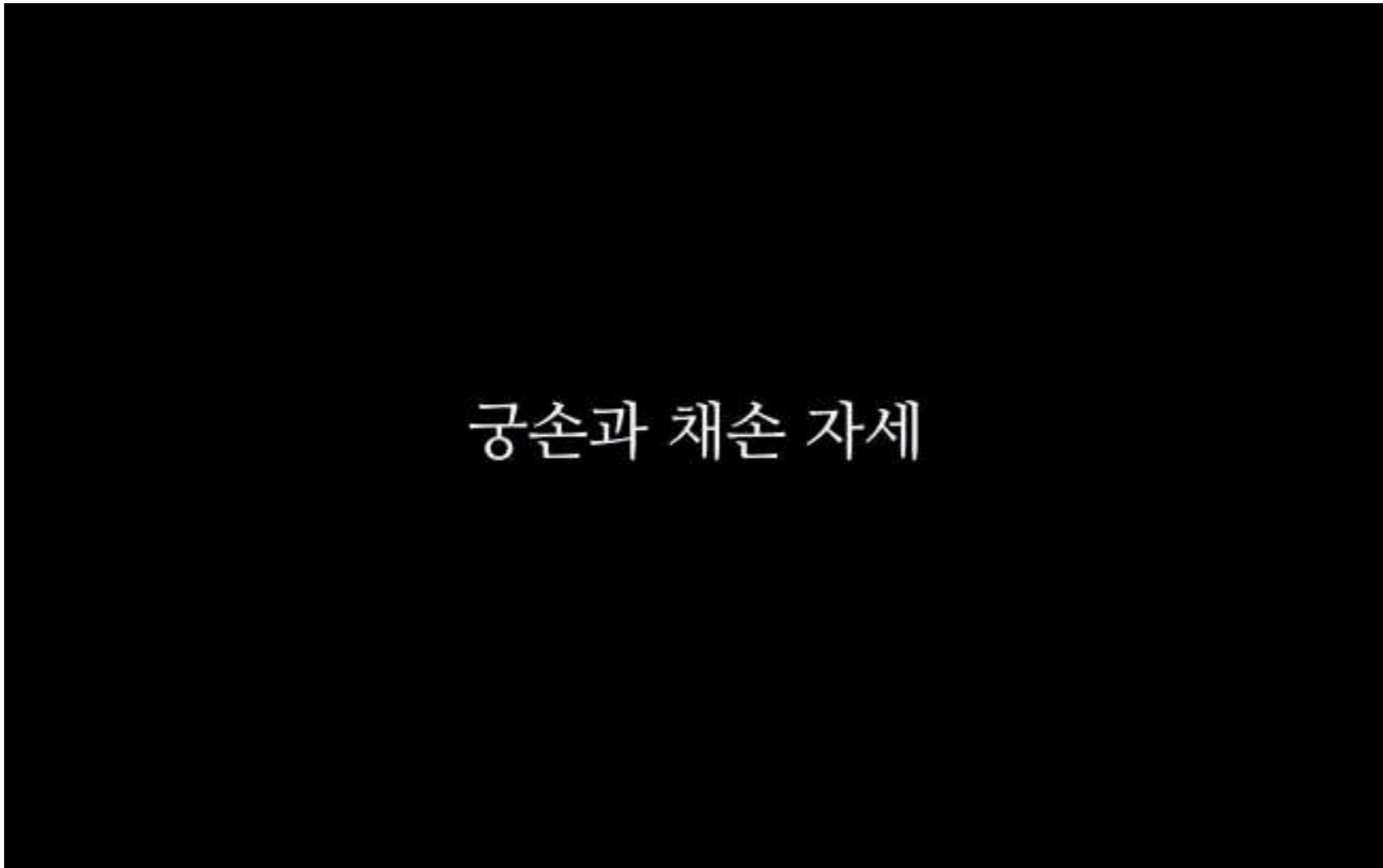
- '반각', '매화점'

'각' 치는 방법



북 연주 방법

궁손은 엄지를 궁편 가장자리에 붙인 상태에서 어깨와 팔에 힘을 빼고 팔 전체를 움직인다. 채손은 오른쪽 무릎에 놓고 북채 끝이 몸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궁손과 채손 자세

앉는 자세

궁손·채손 자세

궁손 연주 방법

채손 연주 방법

- '합' 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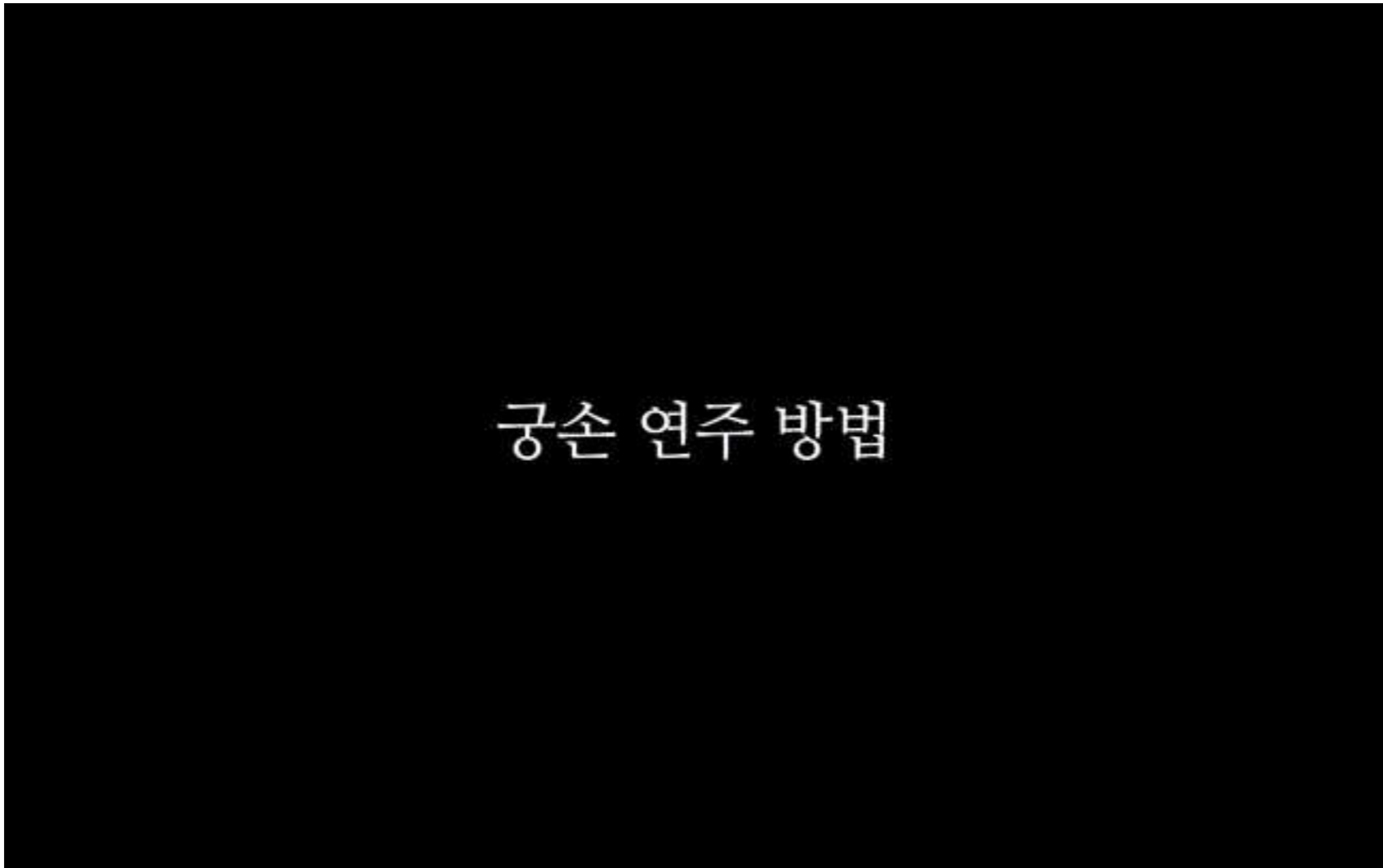
- '반각', '매화점'

'각' 치는 방법



복 연주 방법

엄지를 공편 가장자리에 붙인 상태에서 어깨와 팔에 힘을 빼고 팔 전체를 움직인다. 손을 가지런히 하고 엄지가 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앉는 자세

궁손·채손 자세

궁손 연주 방법

채손 연주 방법

- '합' 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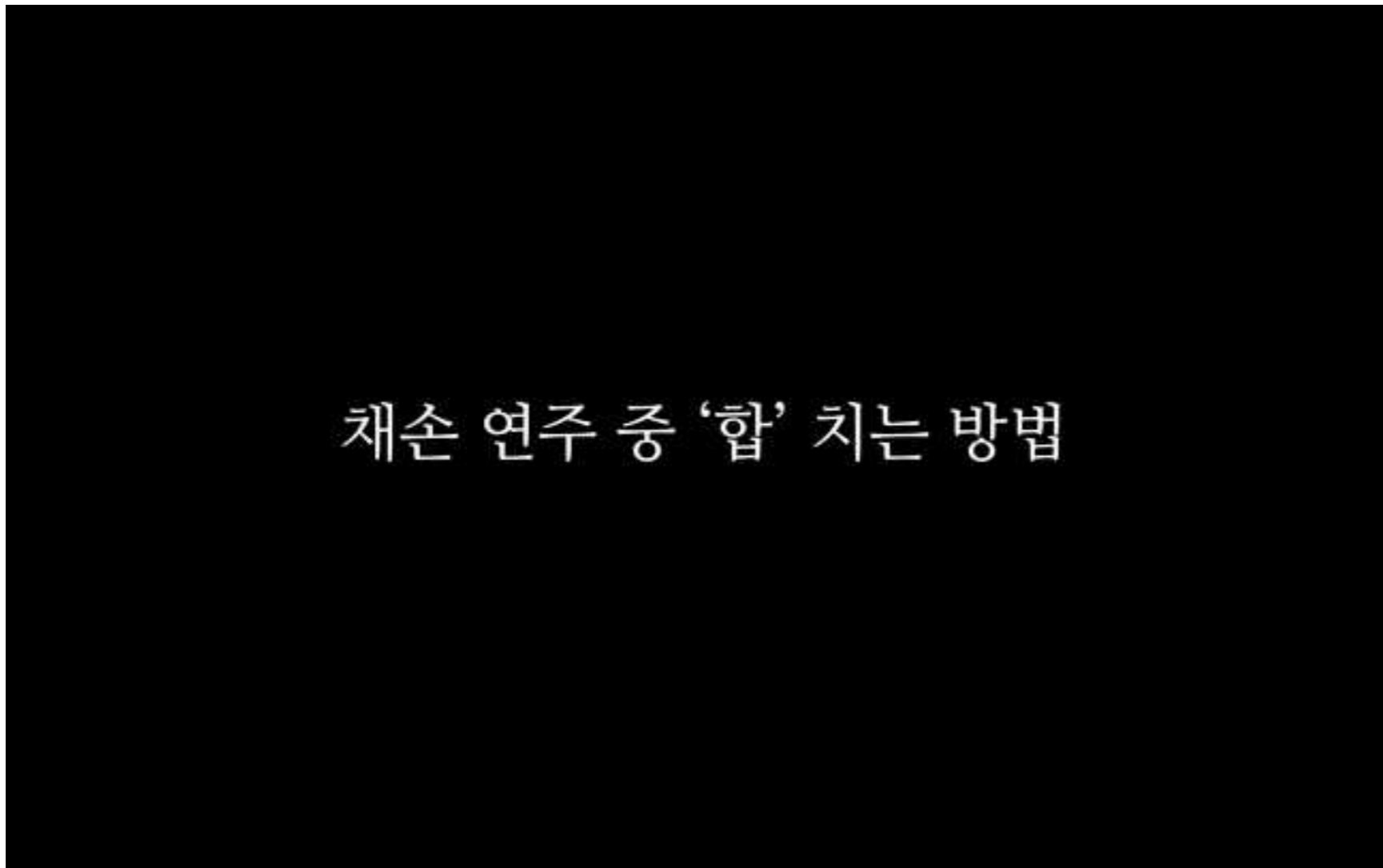
- '반각', '매화점'

'각' 치는 방법



북 연주 방법

‘합’은 궁편 자리를 재빨리 먼저 친 후에 채궁 자리를 친다. 북채를 치고 나서 팔을 반듯하게 유지해야 듣기 좋은 ‘합’ 소리가 난다. 팔과 북이 평형을 이루게 한다.



앉는 자세

궁손·채손 자세

궁손 연주 방법

채손 연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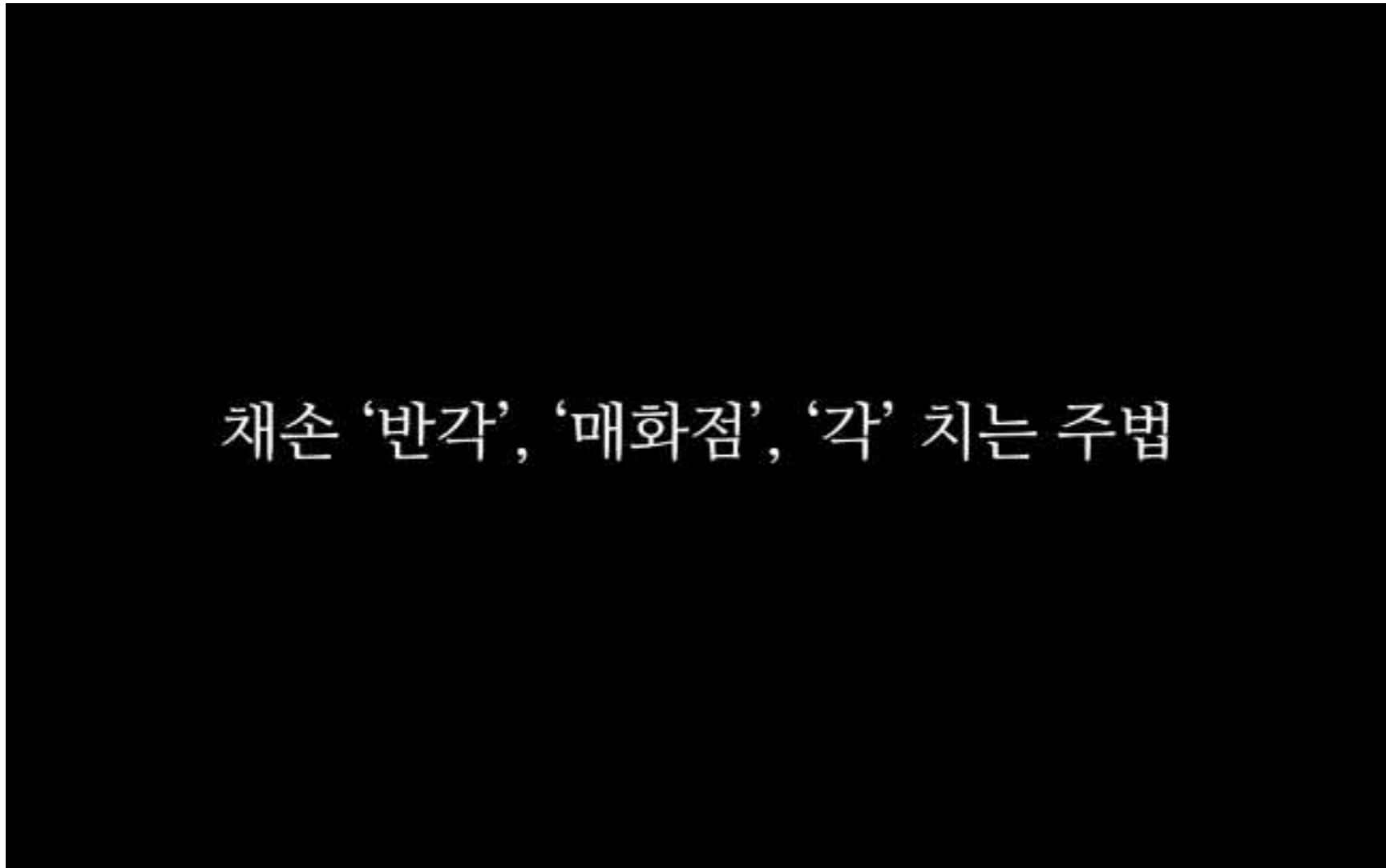
- ‘합’ 치는 방법

- ‘반각’, ‘매화점’
‘각’ 치는 방법



북 연주 방법

반각 자리를 칠 때 북채가 북에 붙지 않게 한다. 매화점 자리를 칠 때는 손등이나 엄지가 위로 가게 해 북채 끝으로 친다.
'대각'은 북의 위쪽 바깥 부분을 친다.



앉는 자세

공손·채손 자세

공손 연주 방법

채손 연주 방법

- '합' 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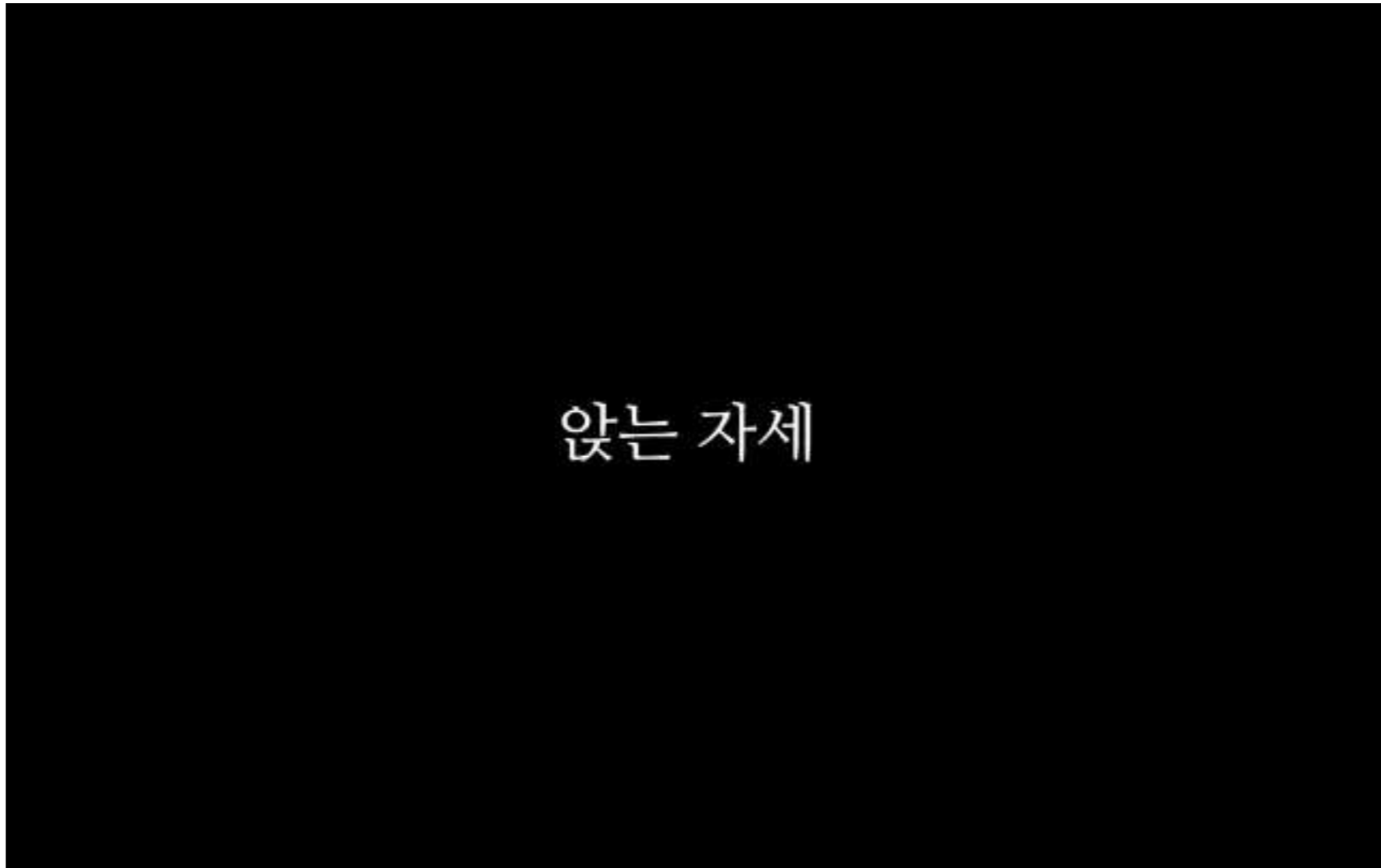
- '반각', '매화점'

'각' 치는 방법



복 연주 방법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을 경우 왼발로 북을 받친다. 채는 가볍게 감아쥐듯 쥐고 북판에 자연스럽게 댄다.



앉는 자세

펴서 치는 가락

굴려 치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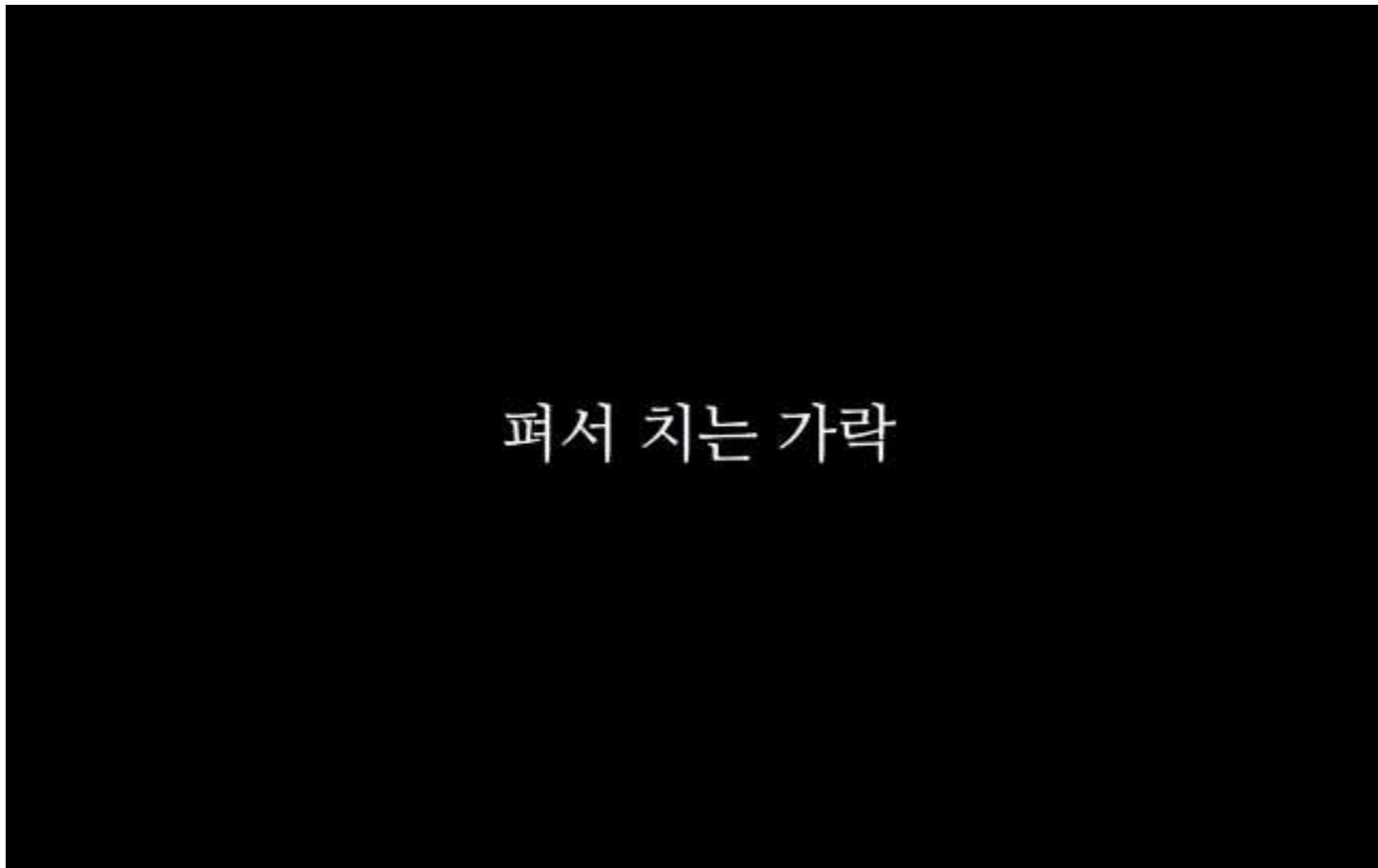
박어 치는 가락

양(兩)북 치기



복 연주 방법

복채를 좌우상하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려친다.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 기본 주법이다.



펴서 치는 가락

앉는 자세

펴서 치는 가락

굴려 치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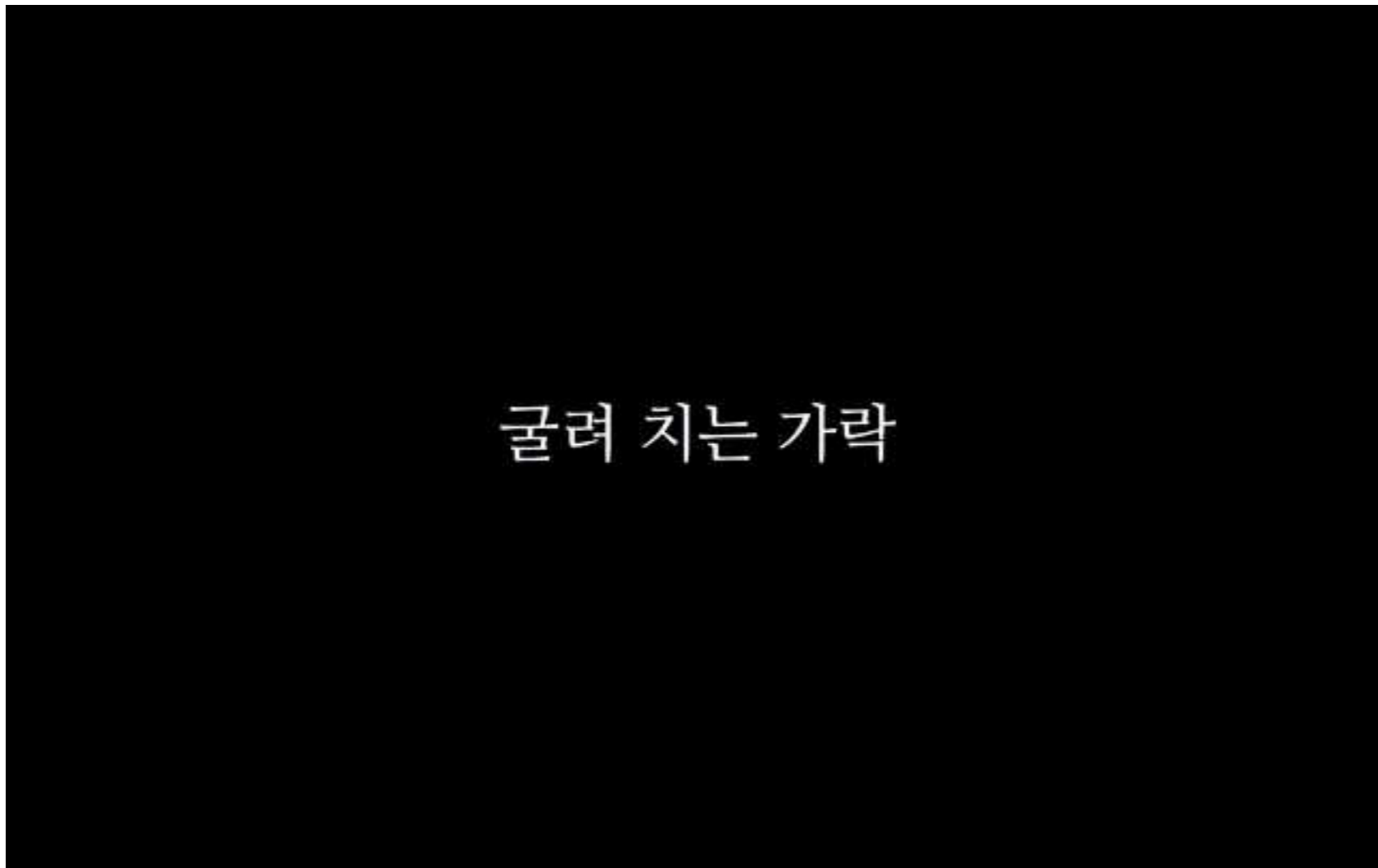
박어 치는 가락

양(兩)복 치기



복 연주 방법

펼쳐 치는 가락의 응용으로, 첫 박은 점을 찍듯 빠르게 연주하고 그 다음 가락은 앞의 박보다 길게 유지한다.



앉는 자세

펼쳐 치는 가락

굴러 치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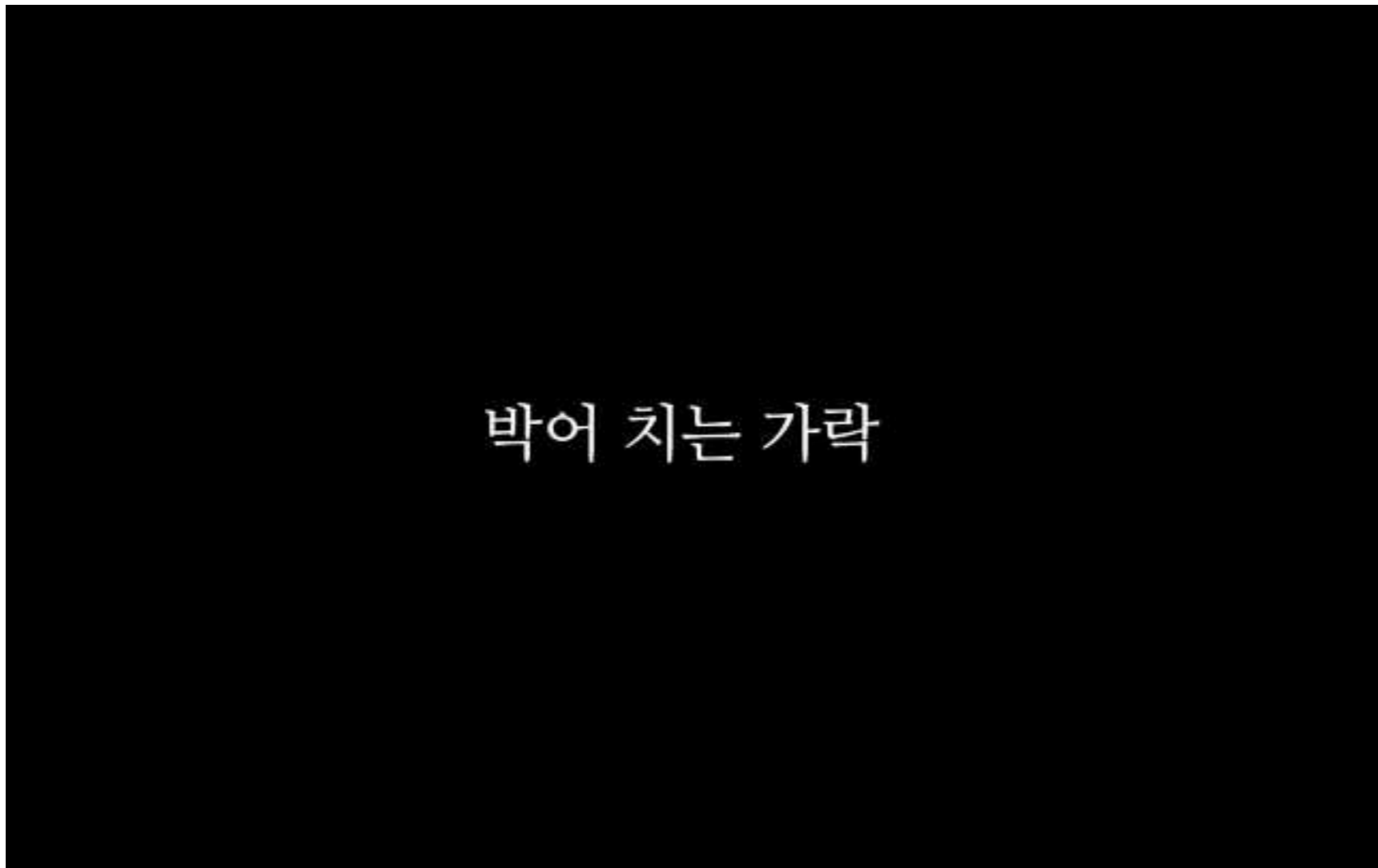
박어 치는 가락

양(兩)복 치기



복 연주 방법

‘뭇’을 박는 것처럼 첫 박은 북채를 눕혀 채의 면을 이용해 내려치고, 다음 박은 채의 끝부분을 달게 해서 음색에 변화를 준다.



박어 치는 가락

앉는 자세

펴서 치는 가락

굴려 치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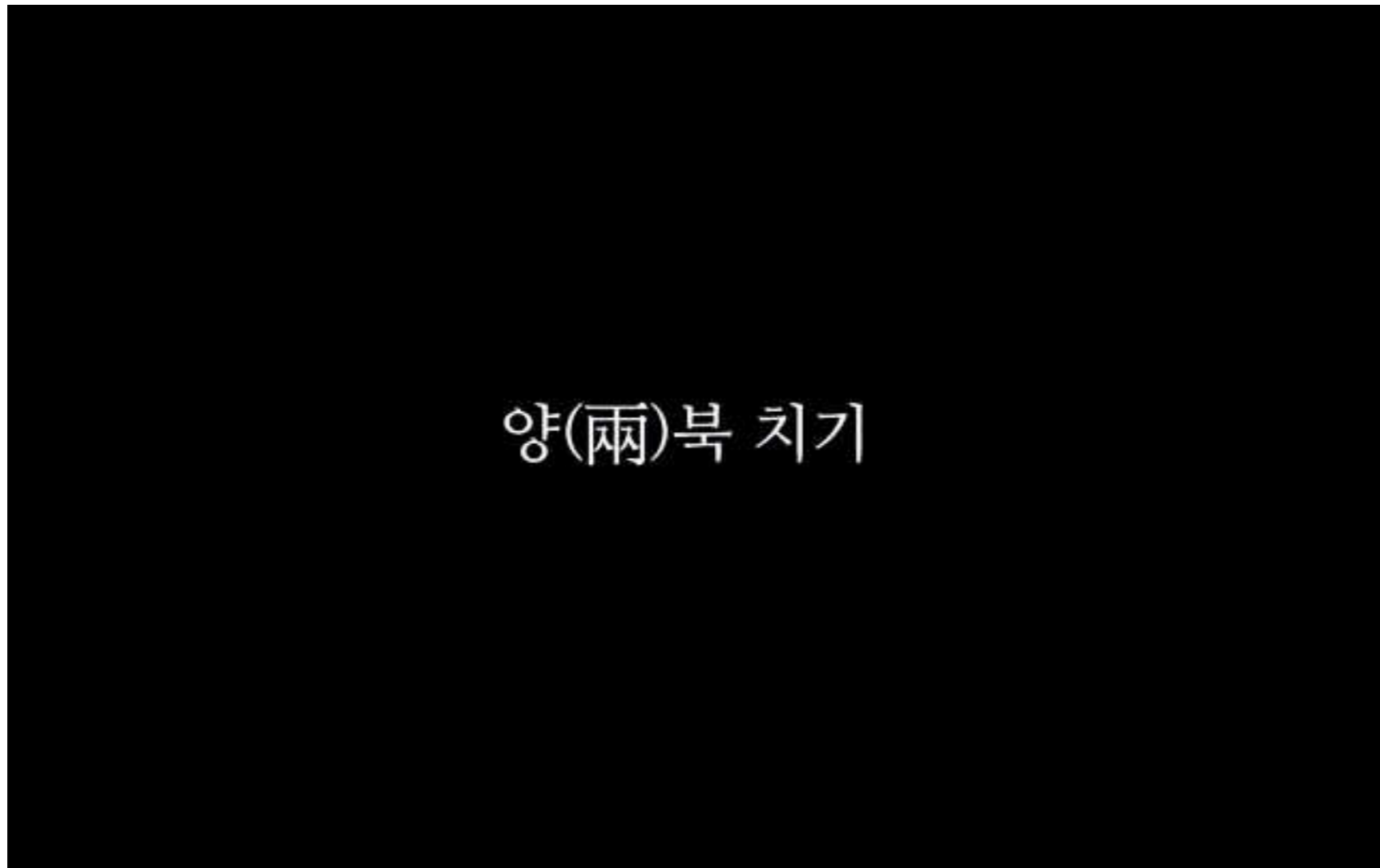
박어 치는 가락

양(兩)북 치기



북 연주 방법

양손에 채를 쥐고 연주하는 주법이다. 주로 진도북춤, 경상도 일부 지역의 농악에서 쓰인다. 다채로운 가락을 선보일 수 있다.



양(兩)북 치기

앉는 자세

펴서 치는 가락

굴려 치는 가락

박어 치는 가락

양(兩)북 치기



三

체험하기

연주해보기

감상하기

현장체험

체험하기



감상하기

도원결의

김일구 적벽가 중

적성가

박봉술의 춘향가 중

소리북 · 판소리 반주





현장체험

전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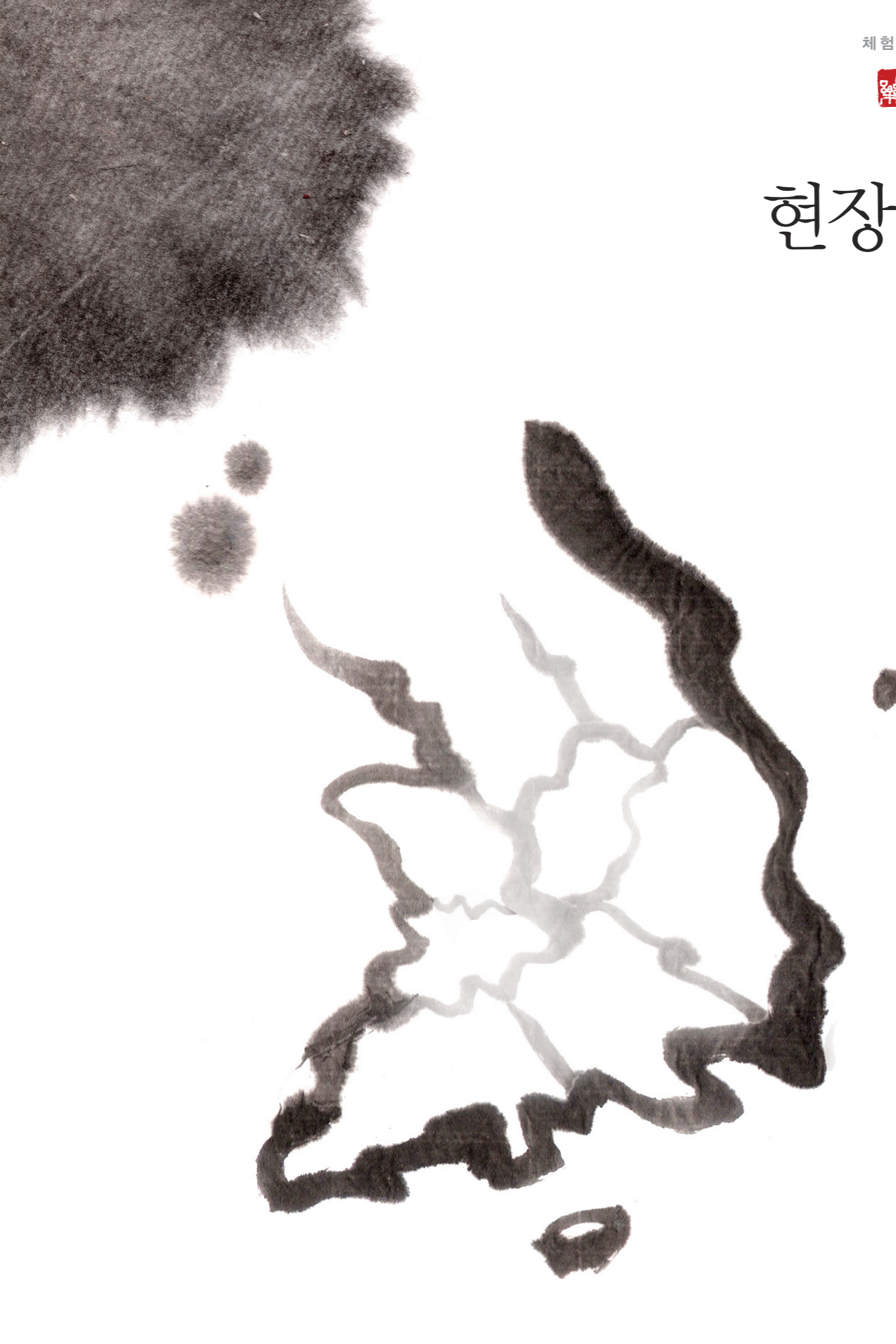
- + 국립국악원
- + 국립국악박물관
- +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 + 기산국악당
- +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 +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 +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 +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 +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 +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원 토요일상설무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상설국악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능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80분가량, 관람 연령은 취학아동 이상이다. 24세 이하 성인과 경로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2인 등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 문의는 02) 580-3300으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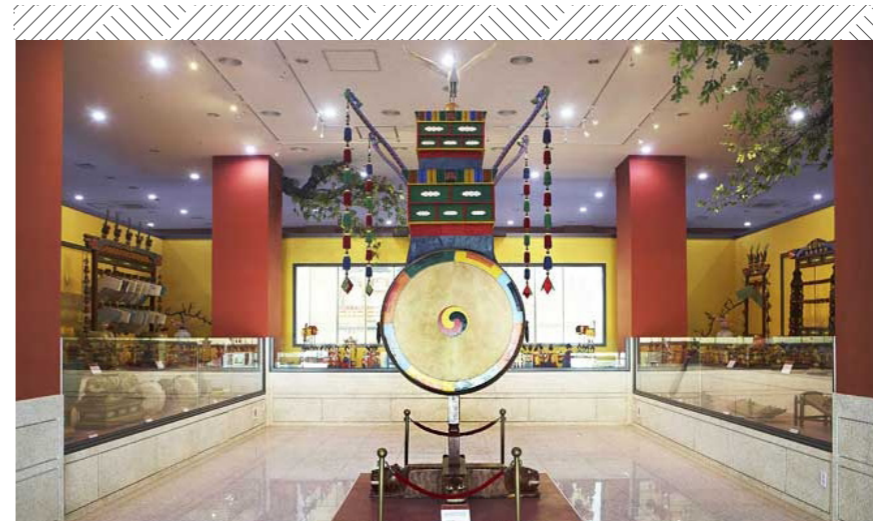
www.gugak.go.kr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박물관 <악기 전시실>

서울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한 국악박물관은 <원류음악실>에서 고대 출토 유물과 신라 토우 등에 등장한 악기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편에 가야금 제작 공방이 재현돼 있다. <서민음악실>에는 생활 속의 우리 악기를 전시해놓았다. <세종음악실>을 찾으면 편경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www.gugak.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현장체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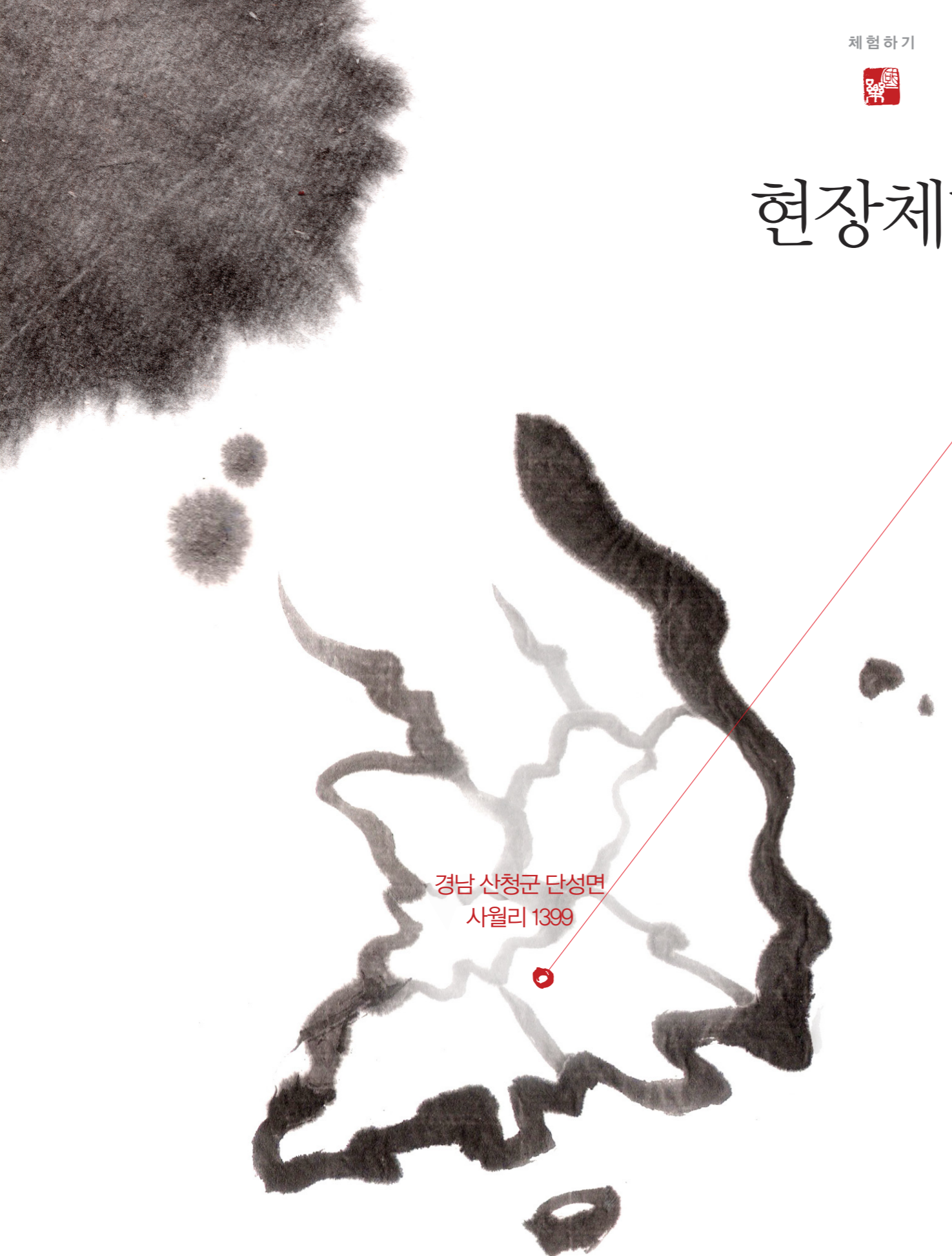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1년 365일, 국악 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만난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센터(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동·서편(2개소) 및 탑승동 3층 중앙서편(1개소)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정악과 민속악 중심의 전통 음악으로 채워지며, 한국문화거리(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에서는 주로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공연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센터 032) 743-0357, 한국문화거리 032) 741-3423로 문의 가능하다. <http://www.airport.kr>





현장체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9



기산국악당

산청 출신 국악이론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곳이다. 복원된 기산 선생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전시된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산관, 전시관, 교육관, 옥외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기산관과 전시관에는 국악기 50여점을 전시, 인근 관광지인 남사예담촌과 연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남사마을에 위치해 있다.





현장체험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각종 전통소리 자료를 디지털 음원 등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전통악기의 음원과 다양하고 독특한 전통소리 음원을 <음원마당> 카테고리 안에서 손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www.koreamusic.org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일반인을 위한 단기강좌
서울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개최하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을 활용하면 악기장에게 직접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통악기 과목의 경우 1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해마다 모집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www.kous.or.kr, 혹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육기간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의 집 1층 문화연수팀 02) 3011-1702, 1788 에서 안내하고 있다.





현장체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는 현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현 작업실 공간을 활용한 악기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에서도 국악기의 모습과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angyekukak.com 이다.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예술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일반인 강좌를 개설해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에 해당하며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자 과정과 중급단계 돈옴과정, 고급단계 맺음과정 및 심화과정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수관 안에서 전통악기를 직접 배울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tpaf.org 나 02) 580-3141로 하면 된다.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4-67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력에 따라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국립극장 홈페이지 www.ntok.go.kr 에서 수업기간과 시간, 수강료,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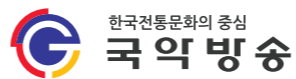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329-1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에 위치한 한울림 교육원은 신명나는 사물놀이 배우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탁본 체험,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적 신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세한 안내는 041) 832-019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samulnorischool.com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북 명인 **박근영** | 임웅수

북 악기장 **이석제**

제작 **솔루원**

글 **김산효**

사진 **아이.엔 스튜디오**

영상 **올댓콘텐츠**